

소아 기도폐쇄 시 이물제거법

이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하는 환자의 90% 이상이 5세 이하의 소아이다.

어린이와 영아는 모든 종류의 물체를 입으로 가져가서 확인하는 특징이 있다. 동전이나 장난감, 구슬 등으로 기도가 막혀 산소부족 현상이 오고 심할 경우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위급상황에 놓이게 된다. 핫도그, 젤리나 사탕, 땅콩 등은 그 모양이 삼키기 쉽고 단단하기 때문에 자주 기도폐쇄의 원인이 된다. 기도가 폐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응급처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.

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교육원장 이희택 일러스트 이은주

소아(1세~8세 미만)에서는 하임리히법(복부압박법)이 권장된다.

- 1) 목에 이물질이 걸렸는지, 말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.
- 2) 환자 뒤에 서서 주먹을 쥐고 엄지쪽을 환자의 배꼽과 명치 사이에 놓은 후 다른 팔로 환자의 상복부를 감싼다.
- 3) 환자의 상복부를 위쪽으로 강하게 여러 차례 밀어 올린다.
- 4)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환자를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 (구조호흡2회-흉부압박30회)을 시행한다.



❖ 영아가 울지 못하거나 청색증이 있는 경우 기도폐쇄를 의미하므로 2회의 인공호흡을 통하여 기도폐쇄를 확인한다.

등 두드리기 법

- 1) 1세 미만의 영아는 의자에 앉아서 팔에 영아의 얼굴이 지면을 향하도록 눕힌다.
- 2) 시술자의 허벅지에 머리는 가슴보다 낮게 하여 영아를 올려놓은 팔을 받친다.
- 3) 손으로 머리와 경부가 고정되도록 영아의 턱과 가슴을 잘 받쳐서 잡고 다른 손으로는 영아의 등(양쪽 견갑골 사이)을 손으로 5회 연속 두드린다.



흉부 밀어 내기 법

- 1) 5회의 등 두드리기 법으로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면 등을 두드린 손으로 영아의 머리를 잡아 고정하고 영아의 얼굴이 위를 향하도록 회전시킨다.
- 2) 시술자의 허벅지에 영아를 올려놓은 팔을 받친 상태로 머리는 가슴보다 낮게 하여 양쪽 유두선 중앙에 손가락 2개를 이용하여 흉부압박을 5회 연속 시행한다.
- 3) 이물질이 배출되거나 영아가 호흡, 기침 혹은 우는 것이 가능해질 때까지 등 두드리기와 흉부 밀어 내기 법을 반복 시행한다.
- 4) 이물질이 구강 내로 나와 있는지 확인되면 제거한 후 영아의 입과 코를 구조자의 입으로 완전히 덮어서 구조 호흡을 실시한다.
- 5) 영아가 반응이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. 🔄

